

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 인사말씀(10.7.)

[인사 말씀]

- 지금부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「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」를 시작하겠습니다.
-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,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,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님,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,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,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오늘 이렇게 경제6단체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고견을 들을 수 있어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.

[경제계와의 소통의 중요성]

-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.
-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정부는 그간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다니며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주요 대책*에 반영해 왔습니다.
 - * 「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(1차)」(26.8월), 「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(2차)」(26.10월) 등
 - 실제 기업의 건의를 바탕으로 ①반도체 팹(FAB) 설치 시 전기·통신공사의 통합 발주*를 허용, 신속한 팹 증설을 지원하고,
 - * 현재 전기·통신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종합건설사가 시공 총괄 불가 → 공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공사안전 관리 미흡, 공정관리 애로, 신속한 보수 곤란 등 발생
 - ②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의 인·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(3→1년 이내)하고자 합니다.
-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건의주시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해소해 가겠습니다.

[현 경제상황 진단]

-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
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,
생산연령인구 감소,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을 하락,
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

[향후 경제정책 방향]

- 정부는 ‘대체불가 대한민국’으로 도약하기 위해
잠재성장을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,
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,
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하여
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- 양극화 완화를 위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
주거, 일자리,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
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.
- 특히,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.

[경제계 의견 수렴]

-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
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
많은 고견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